

2022년 7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경기북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마상공원작은도서관/김은미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헤르만 헤세/웅진 지식하우스	나는 유감스럽게도 쉽고 편안하게 사는 법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2	푸른마을 작은도서관/김진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최대호/떠오름	잠들기 전에 큰 걱정 없이 오늘은 참 잘 보냈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것. 이런 일들이 행복이라고 생각이 든다.
3	와이시티 작은도서관/전선미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김수현/놀	예쁘지 않으면 어떤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떤가. 당신은 당신 자체로 온전하며, 우리 삶은 여전히 소중한다.
4	예다움도서관/백정희	비밀의 화원/프랜시스 호지슨 버넷/현대문학	(번아웃일때는 고전) 메리는 슬쩍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기대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흥분과 놀람, 즐거움으로 숨이 마구 빨라졌다. 메리는 바로 비밀의 정원 안에 서 있었다.
5	화전작은도서관/임희정	키다리아저씨/진 웹스터	이 세상에는 행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앞에 찾아온 행복을 나서서 손에 잡기만 하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비결은 우리가 순응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6	모당공원작은도서관/김정희	오리건의 여행/라스칼 글/루스조이 그림/미래아이	아침이 하얗게 밝아오면, 나는 떠날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7	그루터기 작은도서관/조현아	오름에서 불어오는 영혼의 바람/김영갑/다빈치	온종일 깊은 생각에 잠겨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 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들여다볼 뿐 보려고 느끼려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 남들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 보고 싶으면 보고, 느끼고 싶으면 느끼고, 깨닫고 싶으면 깨달으면 된다.

2022년 7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광주지부

도서관명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책돌이도서관/신화숙	1. Wind Field Orum Cloud 1957~2005/김영갑/다빈치 2. 경북궁/배병우 3. 베케, 일곱 계절을 품은 아홉정원/김봉찬 신준호/목수책방 4. 이까짓 거!/박현주 글 그림/이야기꽃	<p>변아웃이 되었을 때는 일단 자연을 벗 삼아 쉬는 것이 좋겠지만 직접 가볼 수 없을 때</p> <p>김영갑, 배병우의 사진집을 권한다</p> <p>그리고 7개의 계절. 9개의 정원을. 담은 베케의 정원도.....</p> <p>그리고 기운이 좀 난다면 그림책을 읽어보시기를</p> <p>·</p> <p>·</p> <p>우산 없이 비를 맞고 어딘가로 가는 것 해보지 않았다고요?</p> <p>우리네 삶에서 미리미리 대처하고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있던가요?</p> <p>막상 비를 맞고 뛰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p> <p>소진된 나를 다시 생기있게 만드는 건 자신입니다</p>
2 아이숲어린이도서관/김영아	피프티피플/정세랑/창비	50여 명의 사연을 읽으며 함께 울고 웃다가 마지막 장면에선 가슴을 쓸어내리며 위로를 받게 되는 책
3 책문화공간 봄/김순정	떠나기 100일전부터 보이기 시작한 것들/박프레/하모니북스	<p>파리에서 떠나오기 100일 전부터 일상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들의 기록~</p> <p>여행과 일상의 어느 지점에서 머물렀던 작가의 시선이 따뜻하고 신선했어요</p> <p>낮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과 도전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나도 다시 한번?이라는 꿈을 가져보기도 했구요</p> <p>더위와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가 지쳐갈 때쯤 이 책을 만나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다시 마음한켠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p>
4 그림이있는 작은도서관/양애숙	아비투스/도리스 메르틴/다산초당	"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즐기고 생각하는가?"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이 아비투스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즐기는 모든 것, 내가 해내는 모든 과제가 나의 아비투스를 만든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아비투스를 바꾸면 된다, 찰나의 태도부터 평생 쌓아온 지식과 인맥까지.

2022년 7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사무국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현실	불편한 편의점/김호연/나무옆의자	"손님한테 하듯 하세요."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시던데 가족한테도 손님한테 하듯 하세요. 그럼 될 겁니다." ~~ 따지고 보면 가족도 인생이란 여정에서 만난 서로의 손님 아닌가? 귀빈이건 불청객이건 손님으로만 대해도 서로 상처 주는 일은 없을 터였다. (p.251)
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수민	목소리를 드릴게요/정세랑/아작	모든 sf 소설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장르보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지만, 결국 사랑인 이야기들을 읽으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생각하고 마음에 작은 에너지를 준다.
3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박현진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김재환 지음/주리 그림/북하우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보지만 넘어졌던 사람이 계속 넘어지고 거절당했던 사람이 계속 거절당하는 쓰라림의 연속, 그러면서 친구가 주는 요구르트를 마시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인생이겠지요. (p.35)
4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이은주	오늘도 상처받았나요?/마스다 미리/이봄	상처 입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스넥바가 도시 뒷골목에 있다고 한다.

2022년 7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울산경주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박지혜(책누리작은도서관)	무지, 나는 나일 때 가장 편해/투에고/arte	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어. 부끄러워도 그냥 나일 때가 좋아
2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이윤진(햇살작은도서관)	슬픈 세상의 기쁜 말/정혜윤/위고	나는 그토록 깊게 슬퍼한 사람이 타인의 행복을 바란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놀란다.
3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하태연(책가방작은도서관)	슬픔을 치료해주는 비밀 책/캐린케이츠/봄봄	멋진 일을 하는 꿈을 꿀 것. 매일 할 수 있는, 작지만 멋진 일을 상상할 것.
4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소은미(달팽이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김수현/마음의 숲	만약 당신이 삶을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삶의 앞마당에 있는 사소한 행복에 예민해진 살아있는 삶에 기쁨을 찾아야 한다.
5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서정선(책사랑작은도서관)	순례 주택/유은실/비룡소	어떤 사람이 어른인 줄 아니?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2022년 7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충청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해바라기도서관/박면우	불편한 편의점/김호연/나무옆의자	홀리스 독고씨가 편의점 주인의 지갑을 찾아주고, 그 편의점에 취직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아픈 부분을 무심한 듯 어루만져주며 일어나는 소소한 변화에 웃음 짓게 되는 책입니다. 어눌한 말투, 큰 덩치 때문에 손님들은 선입견을 갖지만 이내 독고씨의 세심한 친절에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의 걱정거리, 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되면서 내 마음속 힘들고 조금씩 녹아내리고 딱딱히 굳어있던 마음도 말랑해지는 책입니다.
2	범지기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오유미	벗지 말걸 그랬어/요시타케 신스케 글그림/유문조 역/위즈덤하우스	짧은 그림책에도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한 글과 웃음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번아웃이 되어 글도 그림도 그 어떤 이야기도 안 들어오고 귀찮을 때는 유쾌한 그림책이 딱입니다. 저도 10살 아들도 우울할 때마다 꺼내 읽는 요시타케 신스케의 <벗지 말걸 그랬어>는 스스로 옷을 벗다가 목에 옷이 걸린 아이는 후회와 걱정 체념, 나쁜은 아닐 것이라는 희망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입지 말걸 그랬어로 끝납니다. 도전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체념하고 희망을 갖기도 하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을 보는 듯한 그림책입니다. ^^ 번아웃에는 이렇게 간단하고 재미있는 책이 딱이지요.
3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김은정	세상을 보는 3초의 지혜/희망씨 지음/미네르바기획	늦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출발하면 된다. 도전하면 된다. 인생에서 늦은 것이란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모든 문제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현실 속에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답은 항상 상식 속에 있다 삶의 문제를 풀 때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풀린다. 어려울 때마다 책 속에서 해답을 찾는다.